



송국 작 '봄'

'무등산+Dream'

무진회 초대전 31일까지 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2013 미술단체 초대전' 첫 전시로 '무진회'를 초대해 오는 31일까지 '무등산+Dream'전을 개최한다.

무진회는 광주·전남 출신 재경 화우들의 미술동호회다. 무진회는 지난 1970년대 김영중, 오승우, 정영달, 이태길, 박동인, 박복규 화백 등이 서울에서 '무등회'라는 이름으로 고향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면서 작품활동을 했던 것을 근간으로 지난 2001년 탄생했다.

현재 박복규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회원은 100여명에 이른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동인 전 추계예대 교수, 조강훈 한국미술 이사장, 하철경 한국예총 회장 등 모두 59명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박복규 회장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남도인의 정서가 담긴 전시"라며 "고향을 마음껏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작품들에 담았다"고 밝혔다. 문의 062-613-539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목련이 피었네'

'내 마음의 풍경'

이지화 개인전 19~31일 일곡갤러리

'갤러리에 핀 봄꽃 감상하세요.' 서양화가 이지화씨가 오는 19~31일 일곡갤러리에서 '내 마음의 풍경'을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씨는 봄을 맞아 유채, 벚꽃, 복련, 산수유 등 봄꽃과 새싹을 화폭에 담은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8년 전부터 본격적인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선 이씨는 "제가 하는 일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는 일이고 앞으로도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순간들을 화폭에 담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국미술 회원, 광주 사생회 회원, 청초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410-689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연극제' 20~28일 문예회관 소극장

연극 열전... 화려한 막이 오른다

광주연극제는 지역 극단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젝트다. 경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다 무엇보다 최우수상을 수상할 경우 전국연극제에 참여, 극단 자체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제27회 광주연극제가 오는 20일~28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오후 4시·7시30분)에서 열린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오는 충남 홍성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연극제에는 모두 5팀이 출전했다. 특히 올해는 최우수상에 주어지는 상금 1000만원 이외에도 2등, 3등 수상팀에게 각각 8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수여하는 게 눈길을 끈다. 극단들이 연극제에 참여하면서 작품 제작에 많은 공을 들이지만 최우수상을 제외하고는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버리는 데 대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연극제의 첫 테이프를 끊는 팀은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의자는 잘못였다'(20일)다. 광주 출신 작가 선옥현씨의 희곡으로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여러

최우수상 수상작, 전국연극제 광주 대표로 참여
광주연극협회, 노인·주부 등 참여 '시민연극제' 신설

차례 무대에 올리며 탄탄한 내공을 쌓은 작품이다.

병에 퇴직 후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를 하던 남자 강명규가 가구점 앞을 지나다 반해버린 '의자'를 돌려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극단 대표 이형원 씨가 연출을 맡았다.

극단 '시민'도 오랜만에 광주연극제에 참여했다.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인기 극작가 김광림 작 '살인의 추억'(22일)으로 송강호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유명한 작품이다.

계속되는 연쇄 살인 사건에 투입된 시인 지망생 김형사, 지역 토박이 박형사, 무술 9단 조형사, 서울에서 자란 김반장이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극단 대표 정철씨가 연출을 맡았다.

창작극을 주로 공연해온 극단 열·아리는 올해도 창작극 '우렁각시'(24일)를 무대에 올린다. 사랑에 대한 글을 쓰는 남자

일시	극단	작품
3월20일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의자는 잘못였다
3월22일	시민	살인의 추억
3월24일	열·아리	우렁각시
3월26일	행복한 사람들	풍금
3월28일	푸른 연극마을	꽃같은 시절

가 어느날 라디오 드라마 대본을 의뢰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극단 대표 양태훈씨가 희곡을 직접 쓰고 연출도 맡았다.

26일 무대에 서는 '행복한 사람들'은 올해 처음 참여하는 극단이다. 경연작은 '풍금'. 지난 2001년 '막타 타고 노을보다'로 전국연극제 희곡상을 수상한 김창일씨의 희곡이다. 한중곤·윤희철·이현기·고년영 씨 등 지역 대표 배우들이 출연한다.

마지막 경연작은 푸른연극마을의 '꽃같은 시절'(28일)이다. 소설가 공선옥씨



제27회 광주연극제가 오는 20일~28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작인 극단 까치들의 '꿈꾸는 해바라기'.

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극단 대표 오성완씨가 연출한다.

한편 새 집행부를 꾸린 광주연극협회는 올해 평화연극제, 소극장 축제 등 기존 행사들을 탄실히 꾸러가는 한편 가치 '시민연극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민연극제'는 각 극단들과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 문화 감사 등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극단, 장애인극단, 청소년극단, 주부극단 등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형 행사다.

협회는 또 올해 5월에 열리는 평화연극

제 예산이 삭감돼 30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다각도로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정순기 광주연극협회장은 "힘든 협회 살림이지만 지역극단들을 격려하기 위해 '재공연'을 전제로 연극제 입장작에는 80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며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평화연극제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천우 초상 첫 공개

국립광주박물관 5월26일까지 유물 9점 전시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5월26일까지 상설전시관 유교문화실에서 조선의 개국공신 '이천우(李天祐) 초상' <사진>을 비롯한 유물 9점을 최초로 공개한다.

영광 묘장서원에 보관돼 있던 이 유물들은 지난 2009년 7월 이천우 후손인 전주이씨 양도공파에서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박물관이 이천우 초상을 보존처리한 뒤 이번엔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천우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인 이원계(李元桂)의 아들로, 1369년 이성계 휘하에 들어가 왜구를 여러 차례 토벌하고, 1392년 조선 건국을 도와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됐다.

'이천우 초상'은 도화서 화원이었던 한종유(韓宗裕)가 1400년경에 제작된 원본을 본떠서 다시 그린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매 그림'을 1747년 목판에 옮긴 '이응도 목판'과 1402년 66명의 공신이 태종에게 충성을



맹세한 회맹축을 옮겨 새긴 '회맹축 목판', 이천우와 전주이씨 명현을 모신 묘장서원 관련 유물 등이 소개된다. 문의 062-570-7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통 & Asia' 봄호

'광주·전남 지방신문사 어제와 오늘' 다뤄

인터넷 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간하는 '문화통 & Asia' 봄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 기사는 '광주·전남 지방신문사 어제와 오늘'. 기사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지역에 등록된 일간지는 26개, 발행중인 신문은 18개로 조사됐다. 주간지는 무려 114개나 됐다.

특집에서는 또 우리지역 최초의 신문

인 목포신문에서부터 해방 전후의 언론계 이모저모, 그리고 1980년 언론폐쇄와 1987년 언론자유화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일간지들의 현주소를 다뤘다.

4월 개막하는 21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나승병 사무총장의 인터뷰도 눈길을 끌며 한국내 전 재산을 장

화재단에 기증한 화순출신 재일교포 고(故)이기학 회장의 이야기, 블로그 '맛있는 인생'의 맛객 김용철씨의 인생역정 등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또 설치작가 김주연, 마리톤 손승범씨의 이야기를 다뤘으며 강진 신문학관,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자리에 동지들 틈 '영산나루' 등 가볼만한 곳도 소개했다. 문의 062-22-8467. /김미은기자 mekim@

한국부인회 광주지부장 선출 '시끌'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광주지부자가 지부장 선출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시지부 회원들에 따르면 총 2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부인회 광주지부회는 지난해 말 조모 지부장이 임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올 1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신입 지부장으로 김모씨를 추대했다.

그러나 당시 이사회에 사전 통보없이

불참했던 조 지부장이 '현 지부장 부재시 실시한 정기이사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말썽이 일자 총분부는 2월13일자로 광주지부회를 '사과분규 지역'으로 통지했다.

이사진은 호소문을 통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차기 지부장을 추대해 총회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사과분규지역 통지는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총분부측이 분규 당사자이자 연임을 주장하고 있

는 조 지부장에게 사대 수습권한을 부여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사진은 또 "지난 12일 이사회와 회원 등 30여명이 총분부 회장을 만나기 위해 상경했으나, 본부측은 경찰까지 동원해 출입을 막고 회원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임 본부장은 "사과분규지역은 지난 2월 24일 해제가 됐고, 총분부측의 인준을 받아 연임하게 됐다"며 "전임 이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부장 선출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지하 1,2층 할인매장 1,2,3층 이태리 가구 4,5층 모던,혼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 1899-0240

TV 거실장 무료증정 행사 홈페이지 참조

동구청엽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400평